











# 역적불변의 혁명신념은 최후승리를 본다

불과 한발자국이었다. 역적이냐가 상으로 논의된 제2의 조선전쟁이 분분초초로 다가오고있었다. 전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본 조선반도 사태의 막후조종자는 미국이다. 지금 미국은 남조선과 함께 우리의 코앞에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이고있다. 여기에는 용근 하나의 전쟁을 치르려고 남을 방대한 무력과 핵실험까지 투입되었다. 미국은 조선반도를 무장정복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무조건 남조선군은 물론 미국본토와 핵전쟁방면의 미제침략군을 총발동시켜 북침전쟁을 감행한다는것을 골자로 한 《용근군주도발대비계획》에 따른 연합군주체제를 가동시켰다. 현실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악랄한 정치군사적도발의 배후에 언제나 미국이 서있었다는것을 뚜렷이 입증해주고있다. 어떻게 하나 조선반도를 병합하고 우리 공화국을 지도부에서 영영 없애버리려는 미국의 야망은 극도로 높아지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다.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정벌하고 조국통일대업을 이룩하자!  
이것이 무모한 전쟁도발행동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엄숙한 선언이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국토방위의 비극을 감수한다면 70년, 장구한 세월 조선인민이 당한 불행과 고통을 우리 북에 이 작은 지면에 담을수 있겠는가. 북과 남으로 갈라진 수많은 흩어진 가족들이 안고있는 만만사연은 민족분열의 고통이 얼마나 가슴아비었는가를 그대로 말해줄것이다. 더이상 이대로 살수는 없다. 삼천리강토에서 5 000만의 찬란한 역사와 유구한 문화를 자랑하며 살아온 민족이 남방이 되어가는 분열사를 끝

장내야 한다. 미국과 최후결판을 짓고 싸우고싶은 민족의 환을 기어아 붙여 통일대국을 세계가 보란듯이 일떠세우려는 우리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우리 인민이 지닌 필승의 확신은 결코 적들이 전물하는 현대적무장장비나 원자탄에 있는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고 일떠선 천만군민의 단결의 힘이 있다.  
적파의 싸움은 물리적적의 대결에 앞서 사람의 정신력, 사상의 대결이다. 전쟁의 법칙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승리는 사람이며 무기를 만들고 다루는것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전쟁의 운명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의식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 인민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제국주의우두머리 미제를 반대하는 3년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도 전략전술적우세와 함께 정치사상적우월성에 있었다. 우리의 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믿음은 우리 인민이 지닌 높은 정신력의 바탕이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시작되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끝나는 전쟁의 년대마다에서,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심어 주신다는 자위적역사적의식은 우리 의 자승, 우리 제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떠나 생각할수 없다. 역을 가슴으로 우리 우리는 무장해제와 제도봉기를 노리고 벌어지는 미제의 광란적인 핵위협공격을 짓부시고 인민의 생존

권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왔다. 위대한 당을 따라 선군정정의 힘난한 길을 헤치며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제도가 제일이라는 신념이 대한 진리로 간직되었다. 하기에 천만군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주체의 사회주의를 삶의 요람으로 귀중히 여기고 사랑한다. 우리 인민의 삶의 전부인 사회주의를 우리는 결코 버릴수 없다.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가 고비되면 죽음이다.  
자기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그것을 지키고 빛내려는 각오와 의지는 백배해지는 법이다. 원수들의 모진 고문과 최후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않고 끝내 사랑하는 조국의 품에 안긴 슬픔과 의지의 화신 비전향장기수들이 대한 이야기기는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있다. 이 세상 그 어느 고전이나 사전에도 없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부름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떨쳐나선 인민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복할수 없다는 혁사의 진리를 다시금 깨우쳐주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이 지닌 조국수호의 의지는 이 땅을 어지럽히려고 발목을 잡는 침략자들에게 대한 중요로 더더욱 굳어져지고있다. 미제는 우리 인민이 대를 두고 철저히 소멸해버려야 할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중 우리 공화국을 대대적으로 18개의 폭탄을 투하하고 수도 평양에는 인구 한사람당 1개가 넘는 방대한 량의 폭탄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아, 우리 제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떠나 생각할수 없다. 역을 가슴으로 우리 우리는 무장해제와 제도봉기를 노리고 벌어지는 미제의 광란적인 핵위협공격을 짓부시고 인민의 생존

적인 방법으로 무참히 학살하였다. 남녘로소를 가지지 않고 집단적으로 불태워죽이고 생매장하였으며 어린이들을 어머니몸에서 강제로 떼내어 화학창고에 가둔 다음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워죽였다. 지어 사 람들의 머리에 못을 박고 사지를 찢어 학살하는 귀족같은 만행도 거러놓고도 사살하였다. 이 땅을 통째로 하나의 《신원》으로 만들려고 발악한 미제는 세군전과 화학전까지 벌려 수백만명의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미제야수들의 죄악사는 1953년 7월 정전으로 끝났것이 아니었다. 우리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고립하고 압박하기 위해 고안된 모략극들, 경제적으로 침식시키기 위한 봉쇄책동과 《세계적》을, 사상문화적 대립과 《인원》소통 등 형형색색의 적대적인 행위들은 그 령역과 지속성, 악랄성에 있어서 역사에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미국은 우리 인민을 멸망시키기 위해 핵전쟁을 준비하고 현대판세 군전까지 벌일것을 획책하고있다. 삼천리강토의 그 어디나 려력히 새겨져 오고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는 미제야수들의 죄악의 역사는 우리를 피의 복수애로 부르고있다.

미국이 대결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무자비한 반미전쟁을 벌일것이다. 우리의 존엄, 우리의 체도를 해치려는 원수들을 추호도 용서한적이 없는 조선의 총대이다. 1950년대의 조선전쟁을 돌이켜보라. 우리 공화국은 창건지 역 얼마 안되었던 그 시기 미제와 15개의 추종국가군대를, 남조선과 피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을 포함한 200여만명의 호전파무리와 싸워 승리한 영웅조선이다. 제국주의강적을 무릎 꿇게 한 우리 인민앞에 미제가 년

대과 년대를 이어 섬겨바친 항복서는 또 얼마인가. 제국주의자들의 침에 대한 대결속에서, 열강들의 강권과 전횡이 한무하는 엄혹한 현실속에서 우리의 총대는 보다 위력해졌다.  
우리 인민의 승리에 대한 신념은 지심깊이 뿌리박은 백두산악처럼 굳건해졌다. 눈속에 묻힌다든 푸른빛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부처져 가루태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열매 한 톨에라도 땅을 잃지 않는 참새처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는 노래의 구절구절은 그 어떤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가려는 천만군민의 심장의 율동이다.  
지금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적대세력들이 벌리는 전쟁도발행동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세기를 주름잡아 폭풍처럼 비아하는 우리 공화국의 위업을 집질한자들의 단말마적인 광증이다. 원수들은 우리 공화국을 무서워하며 공포에 떨고있다. 오죽하면 평양지역 미군총사령관이라는자가 북조선때문에 매일 잠자리에 서 일어나는나니 뭐니 하면서 슬렁어가는 소리 를 하였겠는가. 미중용의 대미분노심과 북북결기로 끌어내지는 우리의 땅은 미분토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반공, 반타락기지로 전변되었다.  
침략의 야망을 혼돈도 없애고, 무자비한 항복세도 도장을 찍을 줄도 없게 할것이라는 우리의 선언은 민발이 아니다.  
대세를 망각한 미국이 제2의 조선전쟁도발에 미쳐날뛰도록 우리는 최후승리가 시작되다가 다가오고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위대한 백두봉정령의 품속에서 역적불변의 혁명신념을 버리며 우리 민족의 힘을 키워온 우리 군대와 인민은 승리한 조국의 매일을 본다.

배 금 희

# 여러 나라 신문 특집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였다.  
로씨야신문 《레벤스카야 프라우다》가 얼마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사건 문헌을 모시고 당장전기념탑사건,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멸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선이 해방되었다.  
조국에 개선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쌓인 피로를 풀실 사이도 없이 새 조선건설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하시였다.  
당시 조선은 장기간의 일본제국주의 식민지통치로 하여 폐허나 같았으며 《해방》의 말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조선인민의 새 조국건설을 방해해나갔다.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건강, 건국, 건국선언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된 당장전의 든든한 조직사상적기초에 토대하여 194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또한 조선인민군을 정 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짧은 기간에

일제식민지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우시였다.  
공물신문 《어드린 쏘년》 15일부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시고 특집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국해방으로 조선인민은 일제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존엄높은 삶을 누릴수 있게 되었다.  
일제는 조선전쟁기간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조선인민의 정신문화적재부들을 마구 파괴약탈하였다.  
840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이 강제연행, 참치되어 전쟁터와 고역장에 끌려갔으며 20만명의 녀성들이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다.  
10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이 무참히 학살되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해방을 이룩하시였다.  
또한 조선의 자주, 자립, 자위의 불멸의 사회주의보루로 전변시키시였다.  
조선은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70년간 자기의 사상과 제도, 위업을 굳건히 수호하고있다.  
조국해방은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역사적전환점을 마련한 사연이며 194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또한 조선인민군을 정 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짧은 기간에

## 《야마도혼》을 부르는 군국주의광신자들의 추대

지난 15일 일본정객들이 집단적으로 야스쿠니신전에 몰려가 참배놀음을 요란스럽게 벌여놓았다. 역사의 시궁창속에 처박힌 《야마도혼》을 부르는 군국주의광신자들의 추대가 아닐수 없다.  
야스쿠니신자가 어떤 곳인가 하는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극단한 야마도민족주의에 빠져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파조적압박에 미쳐날뛰다가 개국자를 당한자들의 명부와 위계가 바로 이곳에 있다. 이자들은 그 어떤 《추모》를 받을만한 한 환곡의 가치도 없다.  
야스쿠니신자를 찾아 이런 인간수물들을 《추모》한다는것은 그자들을 위해 엄숙한 죽음을 당한 수백수천만 인민들에 대한 모독이 아닐수 없다. 그것은 또한 반인륜적범죄사를 모방적으로 찬양하는것으로서 역사의 용당한 심판을 받은 군국주의자들의 복수를 하겠다는것을 빼앗아 신고하는것으로 된다. 그런즉 일본정객들의 야스쿠니신자참배행위가 단단히 일본내외 국한된 내부문제가 아니라라는것은 자명하다. 과거침략사를 대하는 일본정부의 핑박과 태도, 그 청산문제의 앞으로의 대대시야관을 보여주는 예민한 정치적문제이다. 국제사회가 일본정객들의 야스쿠니신자참배에 강한 격발을 표시하며 참배놀음을 그만둘것을 요구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일본정객들의 태도는 사람들의 경악케 하고있다. 야스쿠니신자를 참배함에 있어서 그 누구의 눈치도 감정도 고려할것이 없었던것은 군국주의에 찰매로 켜 이들의 편집이며 편집이다. 정부의 수상이라는자가 해마다 야스쿠니신자에 제물비를 보내는것, 총무상과 국가공안위원장을 비롯한 정부고위인원

들의 진자참배가 판에 찍히는것은 그에 대한 뚜렷한 실증이다. 인류의 평상과 정의를 우롱하는 일본당국의 파렴치성은 이처럼 극도에 달하였다.  
일본반동들이 야스쿠니신자참배놀음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는 속성은 다른데 있지 않다. 자국인들을 침략사상으로 무장시켜 제정야망을 기어아 실현하자하는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야스쿠니신자참배행위를 일으키는것으로써 나라를 군국화하여 어느때든지 핵의침략을 단행할수 있게 만들어 하고있다.  
현실적으로 일본정객들의 야스쿠니신자참배놀음은 일본인들의 머릿속에 군국주의의 사상을 심어주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있다. 일본정권총축에서 참배기운이 높아질수록 일본에서는 군국주의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야마도민족은 《다른 나라들을 지배할 사명》을 타고났다는 쾨벤담이 핵의침략에 판을 하였던 사후라이들을 형상한 《동상》들이 곳곳에 세워져 우익분자들의 우상의 대상이 되고 군국주의, 배타주의를 찬미하는것이 하나의 물리로 되고있다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오늘날 일본에서도 세차게 일고있는 군국주의열풍은 제침이 현실로 박두해오고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일본은 오산하고있다. 제침은 일본이 스스로 자멸의 구렁텅이에 뛰어들어 버리고있고 미친것이다. 《동방의 맹주》가 되겠다는 침략전쟁에 광분하던 어찌남의 파조일본이 패망의 쓰디쓴 맛을 보았으며 《야마도혼》을 되살리며 군국주의에 절주하는 일본의 폐일도 결코 달리는 필수 없다.

## 침략적인 반공화국핵전쟁연습의 종지를 요구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조세사상연구소가 미국과 남조선의 대규모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행동을 규탄하여 1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의 범죄적인 성격을 가리우기 위해 미국과 남조선은 이 연습이 《투명하고 방어적》이며 《경제적이고 공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파렴치한 거짓이다.  
이번 군사연습은 이전시기에 진행했던 다른 군사연습들과 마찬가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실험타격연습이다.  
특별히 언급한것은 적대세력들이 이 범죄적이고 침략적인 반공화국핵전쟁연습을 조선해방 70돐이 갖 지난 후에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해방 70돐이 되는 역사적인 해에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조선반도에 평화화합을 마련하기 위해 합동군사연습을 벌리지 말것을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여러차례 요구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으며 정세를 전쟁경계로

## 여러 나라 단체 공동성명 발표, 인터넷홈페이지에 글 게재

에 대한 핵실험타격연습이다.  
특별히 언급한것은 적대세력들이 이 범죄적이고 침략적인 반공화국핵전쟁연습을 조선해방 70돐이 갖 지난 후에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해방 70돐이 되는 역사적인 해에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조선반도에 평화화합을 마련하기 위해 합동군사연습을 벌리지 말것을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여러차례 요구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으며 정세를 전쟁경계로

## 일본의 침략력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벌가리아신문 글 게재  
피해자들은 지금도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있다.  
국제사회는 일본이 자기의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인류를 경악케 하고있다. 일본당국자들은 자들의 침략 역사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며 증거를 제시할 대신 과거침략죄를 부정하면서 도대시 침략의 길로 나가기 위해 군사대국화에 열을 올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여러 나라 신문 특집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였다.  
로씨야신문 《레벤스카야 프라우다》가 얼마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사건 문헌을 모시고 당장전기념탑사건,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멸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선이 해방되었다.  
조국에 개선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쌓인 피로를 풀실 사이도 없이 새 조선건설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하시였다.  
당시 조선은 장기간의 일본제국주의 식민지통치로 하여 폐허나 같았으며 《해방》의 말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조선인민의 새 조국건설을 방해해나갔다.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건강, 건국, 건국선언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된 당장전의 든든한 조직사상적기초에 토대하여 194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또한 조선인민군을 정 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 일본의 침략력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벌가리아신문 글 게재  
피해자들은 지금도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있다.  
국제사회는 일본이 자기의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인류를 경악케 하고있다. 일본당국자들은 자들의 침략 역사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며 증거를 제시할 대신 과거침략죄를 부정하면서 도대시 침략의 길로 나가기 위해 군사대국화에 열을 올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노력

조강생산 증가  
이런에서 올해 첫 7개월동안에 조강생산량이 964만 5 000t에 달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늘어났것이라 한다. 최근 세계장철회가 밝힌다.  
고구수출 증대  
캄보자에서 상반기에 약 6만 2 000t의 고구를 수출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 늘어났것으로 보인다. 17일 이 나라 상업성이 밝혔다.  
도로 건설  
나미비아의 서북부지역에서 19일 새 도로가 개통되었다. 길이가 85km인 이 도로는 나라의 국경무역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전업자원개발 추진  
인도네시아에서 추진자전거

발에 힘을 넣고있다.  
최근 이 나라 대통령은 정부가 원유와 가스의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서남부해안 지역에서 원유 및 가스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거기에서만 매일 37만t의 원유를 채취할수 있으며 13년째의 일차리가 새로 조성되게 된다 한다.  
농촌전기화실현 계획  
인도네시아가 15일 농촌전기화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앞으로 전국의 1만 8 500개 농촌마을들에 전기가 들어가게 된다 한다.  
이 나라 수상은 국가적정원 힘을 집중하여 3년안에 이 계획을 실현할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 나라의 자주권과 이익을 고수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

이것이 적지 않지만 서방의 반로씨야책동에 동조하지 않는 나라를 애도하는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대로씨야제에 합세한 나라들은 의식적인 선택을 하였으며 따라서 그대 책임임을 지고 응당할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고 하였다.  
로씨야의 강경대응조치로 대로씨야제에 참가한 나라들은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적지 않지만 서방의 반로씨야책동에 동조하지 않는 나라를 애도하는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대로씨야제에 합세한 나라들은 의식적인 선택을 하였으며 따라서 그대 책임임을 지고 응당할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고 하였다.  
로씨야의 강경대응조치로 대로씨야제에 참가한 나라들은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적지 않지만 서방의 반로씨야책동에 동조하지 않는 나라를 애도하는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대로씨야제에 합세한 나라들은 의식적인 선택을 하였으며 따라서 그대 책임임을 지고 응당할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고 하였다.  
로씨야의 강경대응조치로 대로씨야제에 참가한 나라들은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보게 되었다.

## 나라의 자주권과 이익을 고수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

이것이 적지 않지만 서방의 반로씨야책동에 동조하지 않는 나라를 애도하는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대로씨야제에 합세한 나라들은 의식적인 선택을 하였으며 따라서 그대 책임임을 지고 응당할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고 하였다.  
로씨야의 강경대응조치로 대로씨야제에 참가한 나라들은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적지 않지만 서방의 반로씨야책동에 동조하지 않는 나라를 애도하는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대로씨야제에 합세한 나라들은 의식적인 선택을 하였으며 따라서 그대 책임임을 지고 응당할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고 하였다.  
로씨야의 강경대응조치로 대로씨야제에 참가한 나라들은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보게 되었다.

## 나라의 자주권과 이익을 고수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

이것이 적지 않지만 서방의 반로씨야책동에 동조하지 않는 나라를 애도하는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대로씨야제에 합세한 나라들은 의식적인 선택을 하였으며 따라서 그대 책임임을 지고 응당할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고 하였다.  
로씨야의 강경대응조치로 대로씨야제에 참가한 나라들은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적지 않지만 서방의 반로씨야책동에 동조하지 않는 나라를 애도하는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대로씨야제에 합세한 나라들은 의식적인 선택을 하였으며 따라서 그대 책임임을 지고 응당할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고 하였다.  
로씨야의 강경대응조치로 대로씨야제에 참가한 나라들은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보게 되었다.

## 나라의 자주권과 이익을 고수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

이것이 적지 않지만 서방의 반로씨야책동에 동조하지 않는 나라를 애도하는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대로씨야제에 합세한 나라들은 의식적인 선택을 하였으며 따라서 그대 책임임을 지고 응당할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고 하였다.  
로씨야의 강경대응조치로 대로씨야제에 참가한 나라들은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적지 않지만 서방의 반로씨야책동에 동조하지 않는 나라를 애도하는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대로씨야제에 합세한 나라들은 의식적인 선택을 하였으며 따라서 그대 책임임을 지고 응당할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고 하였다.  
로씨야의 강경대응조치로 대로씨야제에 참가한 나라들은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보게 되었다.

## 나라의 자주권과 이익을 고수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

이것이 적지 않지만 서방의 반로씨야책동에 동조하지 않는 나라를 애도하는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대로씨야제에 합세한 나라들은 의식적인 선택을 하였으며 따라서 그대 책임임을 지고 응당할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고 하였다.  
로씨야의 강경대응조치로 대로씨야제에 참가한 나라들은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적지 않지만 서방의 반로씨야책동에 동조하지 않는 나라를 애도하는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대로씨야제에 합세한 나라들은 의식적인 선택을 하였으며 따라서 그대 책임임을 지고 응당할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고 하였다.  
로씨야의 강경대응조치로 대로씨야제에 참가한 나라들은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보게 되었다.



라오스의 수력발전소